



주간 통일정세

2008-1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 경계 촉구(3/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원조와 협력의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척 하는 것은 이 나라들에 침략의 손길을 깊숙이 뻗치며 예속의 쇠고랑을 채우려는 데 속심(속셈)이 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완화 전술, 유화 전략을 쓰고 있는 데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술수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부르주아 사상문화는 극단한 개인 이기주의에 근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쪼먹는 유해로운 독소”라면서 “부르주아 사상문화에 물 젖게 되면 사회와 집단의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과 안일만 추구하게 되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비판
-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감수성이 빠른 청년들을 사상문화 공세로 녹여내는 데 특별한 힘을 쏟고 있다”며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중요성을 지적

● 노동신문, ‘한미동맹 강화’ 직접 비난(3/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해치는 매국반역적인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
- 노동신문은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 동맹 강화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남조선(남한)의 친미 호전세력들이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강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이른바 외교면에서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남조선의 친미 보수세력들이 미국과 동맹을 남조선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처럼 떠벌이지만 그 반민족적 성격은 결코 가릴 수 없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남조선의 친미사대 매국노들이 미국과 동맹을 악랄하게 추구한 결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북침전쟁 발발의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돼왔다”고 경고
- 이날 평양방송은 남한에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미



국 측 주장에 대해 “결국 미국은 미·일·남조선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압력과 군사적 봉쇄를 보다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3/22, 평양방송)

● 10·4선언이행 전민족 투쟁 벌일 것(3/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휘날리며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10·4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지침”이라고 거듭 역설

●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가 4월 9일 평양에서 개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채택,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를 주체97(2008)년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상임위는 또 4월 7일과 8일 양일 간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등록을 진행한다고 발표

● 리룡남 무역상 승진 기용한 듯(3/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의 무역상(장관)에 리룡남 부상(차관)이 승진 기용된 것으로 확인, 중앙통신은 같은 내용의 영문기사에서도 리룡남을 무역상(Minister of Foreign Trade)으로 언급
* 리룡남은 1998년 무역부 보좌관을 거쳐 2001년 4월부터 무역성 부상을 맡아왔으며, 2004년 10월부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제1부 위원장도 겸직

나. 경제 관련

● 北기계설비전시회, ‘입체 설계’ 인기(3/23, 조선신보)

- ‘프락토르(트랙터)의 3차원 설계자료’, ‘기계를 3차원의 CAD(컴퓨터 설계) 도면으로 그리는 프로그램’, ‘컴퓨터와 작도기(제도기)를 이용한 발전설비 설계’, 조선신보는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과 기계공업성 기계설계지도국이 3월 19~21일 평양 중앙경공업제품견본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4차 전국기계설계부문 경연 및 전시회에서 기계설비 도면을 입체적으로 도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소개
- 신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북한 각지의 기계설계, 과학연구, 교육 부문과 공장, 기업소 등 200여개 단위에서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400여건의 설계전시품이 전시

● 평양 중심도로 재포장 공사 개시(3/21, 조선중앙방송)



- 북한 당국이 평양시내 중심 도로들에 대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시작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 재포장 공사는 평양의 서북쪽에 위치한 비파거리, 모란봉거리, 영웅거리, 봉화거리, 낙원거리 등 중심 도로와 빙상관 앞 도로, 보통문 가로, 서성역 가로 등에서 이뤄진다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공사에 “군인 건설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에 의해 머지않아 시안의 중심 도로들의 면모는 더욱 일신돼 봄 기운이 약동하는 수도의 풍치를 한껏 돋구게 될 것”이라고 보도
- * 앞서 노동신문은 2007년 10월 24일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도로의 전면 재포장 공사를 지시했으며 공사를 “군인 건설자들”에 맡겨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고 시멘트 등 공사자재는 내각과 성(省), 평양시 관계기관과 기업소에서 책임지고 조달하도록 했다고 보도

● **보온못자리 뽕씨 파종 시작(3/20, 조선중앙TV)**

-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에서 ‘벼 냉상모판’(보온못자리) 씨 뿌리기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 북한은 통상 3월 중순에 벼 냉상모판에 씨를 뿌려 5월 초순부터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4월 초순에 포도에 파종한 뒤 4월 하순에 이앙

● **광고도안 발전시켜야(2008년 1월호, 조선예술)**

- 월간 예술잡지 ‘조선예술’ 최근호(2008.1)는 “물질문화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상업미술, 특히 상품 광고도안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광고도안의 중요성을 강조

● **北협동농장, 인력지원없이 자력농사 바람(3/17, 조선신보)**

- 최근 북한 각 지역 농촌에서는 북한 당국의 인력 지원없이 협동농장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모내기와 추수를 위해 인력지원을 받게 되면 상응한 대가를 지출해야 하지만, 자력으로 해결하면 그만큼 농장과 농장원에게 돌아오는 분배 몫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다. 군사 관련

● **北, 한미 공중훈련 “北선제타격 목표” 비난(3/2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연일 공중훈련을 함께 벌이고 있다며 “유사시 우리 공화국(북)을 불의에 선제 타격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



- 방송은 이날 ‘군사소식통’을 인용, “19일과 20일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군은 20~30대의 각이한 기종의 비행기들로 타격대를 편승하고 남조선의 태백, 영월, 평창 일대 상공을 작전무대로 지상목표물을 순차적으로 공습하는 연습에 광분했다”고 주장하고 또 “17일과 18일 해외기지로부터 출동한 E-3의 종합지휘 밑에 4천500여대의 미제와 남조선군 전투폭격기, 습격기, 추격습격기, 무장직승기(헬기)들이 공중목표포착과 공중전, 지상대상물 기습 타격, 근접 항공지원, 공수작전 등 종합적인 공중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이미 짜놓은 조선전쟁 시나리오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분별없이 돌아쳤다”고 비난

● 北김룡연 인민군 차수 사망(3/20, 노동신문)

- 북한의 ‘혁명 1세대’인 김룡연 인민군 차수가 92세로 사망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부고를 통해 보도
- 량강도 혜산 출신으로, 일제시대 김일성 항일유격대에서 전령(연락병)으로 활동했으며 북한 정권수립 후에는 제1집단군 정치위원, 외교부 국장, 평양방어사령관 등을 거쳐 ‘혁명 유자녀’ 전문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장을 지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올림픽위원장에 박학선 임명(3/23, 중국외교부웹사이트)

- 북한올림픽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북한 체육계의 수장인 박학선 내각 체육지도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23일 확인됨. 중국 외교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신임 박학선 위원장을 면담해 평양에서의 올림픽 성화봉송 준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런 사실을 공개
-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월 제17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식에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이 개막사를 했다고 보도해 박위원장이 체육지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공개, 그는 1985년 청년조직인 사회주의노동청년연맹 중앙위원회 체육부 부장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 한편 2004년부터 체육지도위원회를 이끌었던 문재덕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12월 26일 ‘오산덕상’ 체육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 베이징올림픽 메달 10개 이상 목표(3/23, 교도통신)

-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해 메달을 10개 이상 따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
- 조선올림픽위원회 기술훈련 분과 정해만 부위원장은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북측 선수 50여 명이 10개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고 “우리의 메달 목표는 10개 이상”이라고 언급, 정 부위원



장은 여자축구, 역도, 유도, 복싱, 마라톤에서 올림픽행 티켓을 확보했고, 앞으로 레슬링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에서도 출전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베이징올림픽에 북한은 10개 종목 50여 명만으로도 최근 보기 드문 규모의 선수를 파견할 예정, 북한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10개 종목 32명,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는 마라톤, 유도, 역도, 레슬링, 복싱, 다이빙, 체조, 탁구, 사격 등 9개 종목에 36명을 출전시킨바 있음.
 - * 북한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금 4, 동메달 5개를 따내며 종합 16위에 올랐지만 1996년 애틀랜타에선 금 2개, 은 1개, 동 2개에 그쳤고, 시드니(은 3개, 동 1개)와 아테네(은 4개, 동 1개)에선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함.

● '4월의 봄축전' 연례서 격년으로 바뀌(3/23, 조선신보)

-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을 맞아 1982년부터 해외예술인들을 초청해 연례적으로 치러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올해부터는 격년으로 개최
- 조선신보는 '제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4.10~18)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축전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해 기존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번갈아 열 것이라고 밝힘.
- 국제행사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격년으로 줄어든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전국예술축전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예술축전'이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종전의 관례를 벗어난 매우 성대한 축전"이라고 강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버금가는 성대한 예술행사라는 점을 강조
 - * 북한은 김 주석의 70회 생일을 계기로 처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한 이후 이듬해인 83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25회에 걸쳐 세계 각국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을 대거 초청해 진행, 2007년 축전에는 영국의 유명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가 참석했고 미국의 인기 가스펠 그룹인 '캐스팅 크라운즈'도 초청돼 유명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북한의 인기곡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등을 불렀으며, 가수 김연자씨도 2001년과 2002년 잇달아 초청돼 공연한 바 있음.

● 위성기상자료 수신시스템 새로 도입(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7년 세계기상기구(WMO)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위성자료 수신시스템을 갖췄다고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의 류기렬 소장이 22일 밝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류 소장은 '세계기상의 날'(3.23)을 맞아 "최근 세계기상기구와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기상기구의 자원 협조계획의 틀 안에서 지난해 위성자료 수신체계가 새로 도입돼 위성자료를 통한 기상감시 체계가 세워져 나라의 기상위성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다"고 언급
- 이와 관련, 폴 가우드 WMO 공보관은 2007년 12월 자유아시아방송



(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기상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이로 인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농업현실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려면 현대화된 첨단 기상 장비의 지원이 필요 하지만 북한이 첨단장비 운영을 배우지 않고, 연례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장비 지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힌바 있음.

● **평양산원 28년간 세쌍둥이 371쌍 출산(3/22, 평양방송)**

- 북한 최대의 산부인과 병원인 평양산원에서 28년간 371쌍의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방송은 “평양산원이 개원(1980.7.30)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세 쌍둥이, 네 쌍둥이들이 371쌍 출생했으며 600여만명의 여성들이 이곳에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보도
- *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자리잡은 평양산원은 연건평 6만㎡에 1천500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으며 ‘산과’ 및 ‘애기과’ 외에도 산부인과 질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임상연구소와 의료진 양성소를 갖추고 있음.

● **北, “수질좋은 샘물을 식수로 이용” 자랑(3/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평양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천연 샘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수질을 자랑, 통신은 “오늘 조선에서는 많은 양의 천연 샘물이 인민들의 먹는 물로 공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발견된 수질이 좋고 물량이 풍부한 샘들만 해도 수천개나 된다”고 보도

● **올해 전역 양로원 개보수(3/21,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평양시인민위원회 양로원 창립 60돌을 맞아 북한 전역의 양로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들어간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북한이 “노인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국의 양로원 시설 개보수 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사업이 “국가적 투자로” 진행된다고 보도
- 신문은 또 평양시인민위원회 양로원의 창립 60돌을 맞아 3월 12일에는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전국의 양로원장들이 이 양로원을 견학하고, 양로원 개보수 추진과 노인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 그러나 북한의 양로원 운영 실태나 구체적인 개보수 일정은 소개하지 않음.

● **北, 유럽인엔 15일, 미국인엔 5일 관광 허용(3/21, 연합)**

- 북한 당국이 북한 관광을 하는 유럽인들에게는 최장 15일 동안 체류를 허용하면서도 미국 국적 관광객에게는 4박 5일로 제한하는 등 유럽인보다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스웨덴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콘서트’의 줄리아 달라드 대표가 언급
- 달라드 대표는 또 “유럽 관광객들은 연중 어느 때나 방북할 수 있지만



미국인 관광객들은 아리랑 축전때만 북한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

● 베이징올림픽 北최고령 성화주자는 박두익(3/21, 연합; 3/20, 신화통신)

- 오는 4월 28일 평양에서 베이징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릴 북한측 최고령 주자로 1966년 런던월드컵의 영웅 박두익이 선발된 것으로 확인, 고철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국 집행서기는 20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북한측 성화주자 56명 가운데 최고령은 박두익이라고 언급

* 박두익은 1936년 12월생으로 알려졌다지만 올해 70세인 것으로 소개, 그는 런던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대 이탈리아전에서 결승골을 넣어 북한의 8강 진출 신화를 만들어낸 주인공

- 고 집행서기는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500여명의 지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가 번영 및 건설에 공헌을 한 공무원, 노동자, 농민, 체육분야 종사자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명 선수와 지도자 등을 성화주자로 선발했다”고 설명

● 北, 결핵발병률 높지만 관리는 양호(3/21, 연합)

- 북한의 결핵환자 발병률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당국의 결핵환자 관리에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 WHO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결핵통제 보고서’를 통해 2006년 기준으로 북한 결핵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78명 꼴로, 발병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임.

● 北올림픽조직, 베이징올림픽 대책 논의(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20일 평양에서 연차총회를 열고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곡창지대서도 식량배급 끊겨(116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에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를 포함, 곳곳에서 쌀 배급이 끊겼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조차 일부 중하위 간부들은 이달 현재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보도

● 평양시내 보건소 일제히 현대화(3/18, 조선신보)

- 북한이 오는 6월중으로 평양시내 종합진료소와 리(里) 인민병원들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완료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박길연대사, HEU·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3/20, 연합)**
 -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 “북한은 HEU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시리아에 준 것도 없으며, 미래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언급
- **北김계관, 제네바 북미회담 마치고 귀국(3/18, 연합)**
 -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8일 제네바 북미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국

나. 북·미 관계

- **北, 美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응해야”(3/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미국에 대해 “침략과 전쟁을 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

다. 북·중 관계

- **北외무성, 티베트 유혈사태 中입장 지지(3/20, 북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중국 티베트자치구 라싸에서 발생한 분리 독립 요구 유혈시위 사태와 관련, “티베트의 사회적 안정과 법률, 티베트 인민들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통해 유혈시위 사태를 “티베트의 독립을 꾀하고 당면한 베이징을 립픽경기대회를 파탄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고 규정
- **北, 티베트사태 中 주장만 보도(3/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9일 티베트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폭력범죄 사건”으로 주장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만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
- **北박의춘, 中양제츠 외교부장 유임에 축전(3/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유임된 양제츠(楊潔지중국 외교부장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일 관계

● 北, 후쿠다정권 대북적대정책 추구, 연일 비난(3/19, 민주조선)

- 북한은 일본 후쿠다정권이 북한인권 상황을 문제삼으면서 대북제재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연일 비난 공세
-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아베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던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불순한 목적을 노린 인권소동’ 제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 연장을 주장한 것을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후쿠다 정권도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

마. 북·러 관계

● 北철도상 방러...러社와 합영계약 체결예정(3/21, 연합; 조선신보)

- 북·러 양국이 하산-라진 철도구간 및 라진항 개보수 공사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의 김용삼 철도상이 오는 4월 중 러시아를 방문, 합영회사 설립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들은 21일 “현재 북러 철도당국이 하산-라진 간 물류수송을 담당할 합영회사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중 김용삼 철도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계약서에 서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
-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 하산-라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 창설을 위한 법적, 기술적 문제에 합의하는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한바 있음.
- 합영회사는 앞으로 한국 등으로부터 외자를 끌어 들여 하산-라진 철도와 라진항 3호 부두를 개보수하고 향후 라진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할 예정
- 한편 조선신보는 21일 “조선과 러시아 철도기관은 빠른 기일 내에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개건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올해 중에 라진항으로부터 유럽까지 시범 화물수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

● 北, 북·러 협조관계, 더욱 발전할 것(3/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북-러간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59주년을 맞아 게재한 논설에서 북한과 러시아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



바. 기타외교 관계

● 北김영남, 나미비아 전 대통령 면담(3/23, 조선중앙통신)

- 나미비아를 방문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샘 누조마 전 나미비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는 박의춘 외무상과 안희정 나미비아 주재 대사가 배석
- 김 상임위원장 일행은 20일 나미비아에 도착해 포함바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21일에는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된 나미비아 대통령궁 준공식에 참석
 - * 박의춘 외무상, 리룡남 무역상, 최창식 보건상, 리경식 농업상 등 내각의 경제분야 각료들을 비롯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이번 사절단의 아프리카 순방은 2005년 4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최대 규모, 북한 매체들은 18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나미비아, 앙골라, 우간다를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으나, 뒤늦게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짐.

● 김일성大 대표단 독일 방문(3/22, 조선중앙통신)

- 성자립 총장을 단장으로 한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2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쿠바여성연맹대표단 평양 방문(3/22, 조선중앙통신)

- 수리나 아코스타 브룩스 쿠바여성연맹 산티아고데쿠바주(州) 총재를 단장으로 한 쿠바여성연맹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

● 베를린 北대사관 호스텔로 사용예정(3/21, 산케이신문)

- 독일 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관이 올봄부터 대사관 건물 두 동 중 한 동을 호스텔(간이호텔)로 꾸며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할 계획이라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 산케이에 따르면 호스텔로 사용될 건물은 대사관 대지 8160m²(2468평)의 남측 5층짜리 건물로, 올 1월 개장 공사를 시작, 1층은 10개실, 2층은 27개실로 1박에 20유로(약 3만 1000원)를 받을 예정
- 산케이는 독일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텔로 사용하는 남측 건물은 외교 사무를 보는 북측 건물과 분리돼 이용됐기 때문에 치외법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 북한대사관은 옛 동(東)베를린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냉전시대에 서방 국가들의 대사관 건물을 압도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건설됐다고 알려짐.



- 인도공산당 대회 참석(3/20, 조선중앙통신)
 - 리영수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20일 인도공산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 대표단은 인도와 함께 이란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보도
- ‘파키스탄의 날’을 기념 북·파키스탄 친선모임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파키스탄의 날’은 20일 평양6월9일대성제1중학교에서 열렸다고 보도, 이날 모임에는 누룰라흐 한 파키스탄 대사와 북·파키스탄 친선협회 위원장인 길철혁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
- 북·쿠바 단결위 연례회의 개최(3/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쿠바 단결위원회 연차회의가 19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회의에는 단결위 부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호세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 등이 참석
- 평양교예단, 북·몽골 수교 60주년 기념공연(3/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평양교예단이 북·몽골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몽골을 방문, 울란바토르에서 공연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남북교류

- 北, 10·4선언 백짓장되면 무엇을 합의?(3/23, 연합)
 - 중소기업인 참관단과 함께 방북해 평양에서 만난 북측의 대남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등 향후 남북간 인도적 사업에 관해 문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작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합의된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
 - “인도주의 사업은 10·4(남북정상)선언에 명시된대로 하면 된다.” 림용철 민족화해협의회 참사는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10·4선언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며 “선언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남한의 새 정부가 아직 ‘10·4선언’ 이행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당분간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함. 실제로 림 참사는 “‘10·4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며 “남북 양측 정상간 합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짓장이 된다면 앞으로 남측의 누구와 무엇을 합의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



● **아천글로벌, 北남포 배수리공장 이용권 확보(3/23, 연합)**

- 김윤규 회장의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이 북한의 남포시에 있는 령남배수리공장의 이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아천은 이곳에 선박수리공장, 용접기능공 양성센터, 철구조물 제작사업 등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곳을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
- 아천측은 령남배수리공장 사업에 대해 아직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초기엔 용접기 조립 사업 등을 임가공 형태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 아천은 또 4월 5일 개성에서 남측 500여명, 북측 100여명이 참가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갖기로 북측과 의견을 모으고, 이 행사를 위한 실무 교섭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 **올림픽 성화, 전세기로 서울→평양 직접봉송(3/21, 연합)**

-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4월 27일 서울에서 평양으로 특별전세기편으로 직접 봉송되는 것으로 확인됨. 21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올림픽 성화는 내달 27일 서울 봉송을 마치고 밤 늦게 인천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를 거쳐 다음날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 대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올림픽 성화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평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언급
- 평양에 도착한 성화는 봉송주자 80명의 손에 들려 주체사상탑부터 김일성체육관까지의 2km구간을 이동하며 삼성과 코카콜라, 련상 등 올림픽 후원 3사에 한해 차량 광고가 허용돼 평양 시내에서 삼성의 광고판도 볼 수 있게 될 예정

● **평화항공여행사, 평양관광 신중히 추진(3/21, 연합)**

- 평화항공여행사는 6월 평양골프관광과 8월 평양 아리랑축전 관광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
- 평화항공여행사 관계자는 “6월과 8월의 평양관광은 준비하는 기획 단계”라면서 “아직 통일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통일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 그는 평양관광의 예약 상황에 대해 “우리 여행사를 통해 그동안 평양을 방문한 사람이 3천명을 넘는다”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재방문 희망자들이 2005년 평양관광 이후로 꾸준히 선예약을 하고 있어 현재 3천여명의 예약을 받았다”고 밝힘.



- **김문수 경기도지사 개성에서 식목행사 예정(3/20, 연합)**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월 북한 개성을 방문, 식목행사를 가질 예정,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4월 10일에서 12일 사이 개성시 개풍을 하루 일정으로 방문, 식목행사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진을 북한에 파견, 방문시기와 일정,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계획

- **코레일 전북지사, 금강산 관광열차 운행(3/20, 연합)**
 - 코레일 전북지사는 오는 4월 25일 기차를 이용해 금강산을 찾아가는 '금강산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20일 발표, 이 상품은 오후 9시 30분에 전주역을 출발해 다음 날 새벽 강원도 춘천의 김유정역에 도착한 뒤 버스로 금강산에 들어가 만성정, 안심대, 망향대 등을 둘러보고 금강산 온천을 하는 무박 3일 코스

- **北, 개성관광 안내 책자 발간(3/18, 조선신보)**
 - 남한 주민들의 개성관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개성의 문물을 소개한 도서 '개성의 역사와 문화'를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펴낸 이 책은 개성의 유적과 유물, 전설, 민요시가, 풍속, 천연기념물,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개성의 자연과 역사, 문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소개

- **새 정부 첫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3/18, 통일부)**
 -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뤄짐.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2008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참가중인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1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남북이산가족 1분기 상봉 전망 불투명(3/18, 연합)**
 - 남북이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을 연간 400명씩 만나게하기로 합의했으나 2월 초부터 남북 적십자간 대화가 끊어져 1분기 상봉 전망이 불투명
 - 남북은 지난해 12월 제9차 적십자 회담에서 올해부터 연간 400명 정도씩 이산가족이 상봉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지난달 5일 영상편지를 교환한 이후 북측 적십자와 대화가 끊기면서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불턴 전 대사 “6자회담 중단 후 북한 제외한 협상해야”(3/17)

- 존 불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약속 위반 속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6자회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을 제외한 협상을 통해 대북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불턴 전 대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난파한 6자회담과 북한의 수많은 약속 위반으로 실패한 정책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미국 주도로 이뤄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은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면서 한국의 2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취한 유화 정책 속에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구상(PSI)의 영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
- 그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것은 미국이 헛된 환상을 추구하면서 금융적 압박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압력 수단을 포기한 것이라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을 통한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다시 허용한 것을 비난

● 러, “북핵문제 여전히 어려움 직면”(3/19)

-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2007년 외교정책 리뷰를 통해 “베이징 프로세스’는 북미간의 신뢰 부족과 팽팽한 이견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
-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핵 6자회담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 특히 1단계 북핵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었던 BDA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을 재개시키고 2단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예시
- 러시아가 핵미사일 실험에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지지한데 대해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양국 간 잠재적 우호관계는 유지됐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 北 박길연대사, HEU, 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3/20)

-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
- 교체될 예정인 박 대사는 19일 오후 이임 인사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HEU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시리아에 준



것도 없으며, 미래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

- 박 대사는 반 총장에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힐 차관보 간의 북미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기술적인 협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언. 박 대사는 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의와 협력을 강조하고 반 총장에게 한반도 문제를 항상 신경써줄 것도 요청
- 반 총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열심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책이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남북관계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힐, 北에 조속한 핵신고 거듭 촉구(3/20)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북핵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진전이 필요하며 아주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북한이 조만간 전면 핵신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 이어 핵신고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북한측 대표단이 제네바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그들에게 며칠 간 말미를 주고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 그는 김계관 부상과의 제네바 회담에서 “(신고) 형식을 논의했으며, 형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양측 간에 형식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 그러나 “근본문제는 북한이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
- 그는 핵 신고의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더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북핵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3월이라도 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
- 북한의 핵신고에는 우라늄 핵프로그램과 핵확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이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신고는 미국에서 “정치적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교도통신, “北, 미국 제안에 非호의적 반응 보인 듯”(3/17)

- 6자회담의 교착상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제안과 관련, 현재까지는 북한이 비(非)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힐 차관보가 시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보도
- 힐 차관보는 13일 제네바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장과 회담한 것과 관련, “대화는 좋았다. (다만) 그가 평양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반응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난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워싱턴타임즈(WT), “美 민주당 北에 부시 임기내 핵타결 촉구”(3/19)

- 미국 민주당이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측에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더 나은 협상을 기대해 협상을 연기시키지 말고 현 조지 부시 행정부와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워싱턴타임즈(WT)』가 보도
- 타임스는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 2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 공연때 방북했던 페리 전 국방장관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됐음을 힐 차관보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 그는 WT 편집진들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방북전에) 페리 전 장관에게 (북핵협상에 대해) 브리핑했고, 페리는 북한측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더 나은 협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북한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
- 한편, 북핵 신고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 핵이전 의혹을 가장 중요한 신고내역인 북한의 플루토늄 핵프로그램과 분리해서 신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어떤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이를 북한에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측에 확신시켰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 또 힐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여부에 대해 지난 1970~80년대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상기시킨 뒤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일본을 희생시키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

○ 미, 대북 식량지원 재개하나(3/20)

- 북한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된 사전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음.
- 20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펠럼 미 국무부 인도문제 담당 정보 분석관이 최근 방한, 18일 통일부당국자와 면담하고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NGO관계자들과 만남.
- 펠럼 분석관은 정부 당국자와 만나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악한 내용과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문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미측은 직접 북한 안에서 분배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북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원 방안이 표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온 와중에 미 국무부 인사가 다시 북한의 식량 사정 및 납북자의 지원 계획 파악에 나서고 50만t 규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음.
-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유엔식량계획(WFP) 등을 인용, 북한은 작년 8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식량생산이 25% 줄



고 겨울 가뭄으로 보리와 밀 수확량이 감소한데다 쌀, 밀 등 곡물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했다고 보도

● 美의원들 潘총장에 서한..탈북자 中출국 지원요청(3/21)

-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톰 코번 상원의원, 일레나 로스 레티넨, 조지프 피트, 샌더 레빈, 다이앤 왓슨,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 등 공화 민주 양당 소속 의원 8명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을 지원해달라는 서한을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최근 발송
- 18일자 서한에서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보호 아래 묶여 있는 1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속히 출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
- UNHCR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 탈북자는 한국 헌법상 한국민의 권리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출국비자 거부로 최대 2년간이나 베이징을 떠나지 못한 채 제3국에서의 정착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
- UNHCR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 탈북자는 오랜 수용생활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UNHCR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까지 새로운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출국비자를 거부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설명
- 의원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 당국에 국제법에 따라 즉각 출국비자를 발급해주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

다. 중·북 관계

● 北외무성, 티베트 유혈사태 中입장 지지(3/20)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 티베트자치구 라싸에서 발생한 분리독립 요구 유혈시위 사태와 관련, “티베트의 독립을 꾀하고 당면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를 파탄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티베트의 사회적 안정과 법률, 티베트 인민들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티베트 분립주의자들이 불순세력의 사촉(사주) 하에 조직적으로 감행한 것으로서, 지금 전체 중국 인민들의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
- 북한은 지난 8일 외무성 대변인이 대만 문제와 관련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대만이 어떤 형식으로든 유엔에 가입하려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10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은...어떤 경우에도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것을 절대로 허



용하지 않을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는 등 중국의 대외 사안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적극 표명

● 북한서 중국 드라마 ‘인기’(3/19)

- 북한 조선중앙TV가 매일 오후 8~10시에 방송 중인 중국 전쟁드라마 ‘적후무공대(敵后武工隊)’는 호텔,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춘 채 다 함께 시청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신화통신 발행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가 보도
- 이 드라마는 더빙 없이 중국어에 우리말 자막을 삽입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1월21일자 기사에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DVD를 밀수해 주민들끼리 돌려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 결과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 북한정권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한 바 있음.

라. 일·북 관계

● 고무라 외상, “日, 대북제재 강화하지는 않을 것”(3/17)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16일 가가와현 다카무스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 남북자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 제재철회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매우 강력한 만큼 추가적인 제재강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
- 이어 남북자 문제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힘든 매우 어려운 문제로 규정하면서 남북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 수교문제도 진전을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

● 日의사회, 北원폭피해자 건강조사단 파견(3/19)

-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 일본지부는 18일 히로시마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진단을 위해 의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
- 우스이 시즈테루(碓井靜照) 일본 지부장은 지난 7일부터 엿새동안 인도에서 열린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세계대회에서 북한지부와 회담을 갖고 북한 원폭피해자 건강조사를 위해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일본 의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세계대회에서 중국, 몽골, 북한 등 동북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시대 창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북한측도 핵무기 폐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마. 러·북 관계

● 北신문, “북·러 협조관계, 더욱 발전할 것”(3/17)



- 「로동신문」은 북·러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59주년을 맞아 ‘조(북)·러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
- “조·러 친선의 강화발전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유익하다”며 “조·러 친선협조관계는 앞으로 두 나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발전될 것”이라고 언급
- “조선과 러시아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보장, 주요 국제문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호상 협력하고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

바. 기타 국가·북한 관계

● 우간다 북한과 군사·경제협력 확대(3/17)

- 우간다는 북한과 경제·군사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오켈로 오리엠 외무장관이 1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사흘 간 우간다를 방문하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오리엠 장관은 설명했다
- 이번 협정에 따라 우간다는 북한에 버섯과 실크를 수출하고, 북한은 우간다 경찰 및 대통령 경호요원들의 훈련과정을 지원하게 됨. 오리엠 장관은 “북한은 군수품의 주요 공급처로, 그러한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나미비아와 앙골라도 방문할 예정

● 북한, 아프리카에 대규모 사절단(3/21)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일 나미비아를 시작으로, 앙골라,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11일 간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음.
-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북한 사절단에는 박의춘 외무상, 리룡남 무역상, 최창식 보건상, 리경식 농업상 등 경제관련 인사들이 참여 이번 아프리카 외교의 초점을 경제협력에 맞추고 있음을 시사
- 김 상임위원장은 20일 히피케푸니에 포함바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대표들간 의료진 교환, 의료 및 과학기술 정보 공유 등의 협정 체결을 지켜봤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또한 양 지도자는 교역, 국방,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아프리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식량 부족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강화를 통해 경험확대를 꾀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실행 가능한 경험 방안은 무기와 노동력 수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김영남 나미비아 방문.. 의료, 과학 협력 협정 체결(3/21)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일 나미비아를 방문, 3일 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 김 상임위원장과 23명의 북한 대표단은 이날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 공항에서 21발의 축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히포케푸니에 포함바 대통령과 나하스 앙굴라 총리, 다른 각료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나미비아 통신(NAMPA)」이 전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포함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교역, 국방,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 김 상임위원장은 나미비아 측에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와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양국 대표는 의료진 교환, 의료 및 과학기술 정보 공유 등의 협정을 체결
- 그러나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측과의 우라늄 농축 관련 협력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나미비아는 세계 5대 우라늄 매장국으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자체 생산된 우라늄 농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김 상임위원장은 21일 나미비아 독립 18주년을 기념해 북한이 새로 건설한 대통령관저 개관식에 참석하고 삼 누조마 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 한 외교관은 “나미비아의 독립 투쟁 기간 집권 남서아프리카인민당(SWAPO)을 지지해준 북한은 전통적으로 나미비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중 관계

● 티베트사태로 흠집난 채 폐막한 中전인대(3/18)

- 중국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2기를 출범시키며 18일 오전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 전인대는 그러나 회기 중 발생한 티베트(시짱.西藏) 라싸(拉薩) 유혈 사태라는 악재를 겪으면서 흠집이 난 채 끝이 났음.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폐막식은 올해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결의안을 비롯해 지난해 및 올해의 중앙·지방예산안과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과시키며 마무리됐음.
-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 부주석에 선출되면서 5년후 국가주석 자리를 예약했으나 차기 대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에는 오르지 못했음.
-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무원(정부)의 조직개편과 국무원 부총리 3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5명 전원이 교체되는 등 대규모 인사개편이 이뤄졌음.



- 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설정하고 물가상승률을 4.8%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통화정책도 안정에서 긴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 전인대와 함께 양회로 불리며 최대 정치행사의 한 몫을 담당해 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인대에 나흘 앞서 개막해 14일 폐막

● 柳외교, 내일 중국방문, 북핵·양자 현안 협의(3/1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을 방문예정
- 방중 이틀째인 21일 오전 양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해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포함한 양국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
- 일부 소식통들은 “유 장관이 중국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주창해온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중국 일각에서 제기해 온 ‘중국 소외론’을 의식한 행보로도 비쳐진다”고 말했다.

● 柳외교 방중 첫날…북핵·경제외교 주력(3/20)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중 첫날 특히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이며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가는 곳마다 북핵 문제와 경제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양국간 협조를 강조
- 유 장관을 만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은 유 장관이 장관 취임이후 첫 해외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 “중한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관심. 이에 유 장관은 “한미관계 강화가 한중관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윈윈(서로 도움되는)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
-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하면서 일각에서 ‘중국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측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최근 중국 조야의 분위기를 전해준 것으로 풀이됐음.
- 두 사람은 6자회담의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급적 5월 전에는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하고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북핵·양자 현안 논의(3/21)

- 중국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오전 베이징(北京) 시내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
- 두 장관은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고비를 맞은 북핵 6자회담의 모멘



텀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안인 핵 프로그램 신고 방안과 관련, 북한측을 설득할 수 있는 이른바 ‘절충안’ 도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미 관계

●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 논란 재점화(3/16)

- 벨 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 미2사단 이전 비용과 관련, “우리(한미)는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며 “50%는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또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미 2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총 비용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사단 이전 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해왔음.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기로 한 것”이라며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
- 벨 사령관의 기지이전 비용 관련 발언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함으로써 미국 측의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음.

● 성조紙, “벨, 주한미군에 무장차량 보급 요청”(3/20)

- 「성조지(紙)」는 20일 “버웰 벨 사령관이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무장차량이 부족한 주한미군의 현실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MRAP(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장갑차를 포함한 무장차량을 보급해 줄 것을 미 육군에 요청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 그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북한 특수부대의 능력을 고려할 때 모든 주한미군의 차량이 무장되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는 것임. 하지만 벨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 차량의 2%만 무장돼 있지만 전쟁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불평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고 전함.
- 벨 사령관은 이어 12일 미 하원 군사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미국을 방문,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과 마주 앉아 토론을 거쳐 (감축)휴지기를 갖는 데 동의하는 게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올해



말까지 3천500명을 추가로 감축키로 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미측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벨 사령관은 이밖에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내달 체결(3/20)

-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MOU 문안 협의가 한·미간에 진행중”이라며 “내달 초에는 문안협의를 마쳐지고 중순에는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미는 ▲상호주의 ▲VWP 가입국가 간 형평성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 하에 한국의 VWP가입 문제를 논의해 왔음.
- 정부는 VWP가입의 조건인 전자여권을 이달 중 시범발급하고 8월께는 전면 발급한 뒤 9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합동평가단의 가입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VWP가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임.

다. 미·중 관계

● 中, ‘부시의 대만총통 당선축하’에 불쾌감 표시(3/23)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부시 대통령이 대만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마잉주(馬英九)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2일 성명을 통해 마잉주 대만 총통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내고, “이번 (대만) 선거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화에 나서 그들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표시

● 美·中, 올림픽 때 외국인 사생활보호 놓고 설전(3/24)

- 미국 국무부가 20일 베이징올림픽 때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사생활을 기대하지 말라는 주의령을 발령
-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가면 모든 호텔 방과 사무실에서 현장 감시원이나 원격 모니터링 장비에 의해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호텔 방과 주택, 사무실 모두가 점유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물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항상 감시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라며 천명



● 中, 美 다르푸르 활동가단체 해킹 의혹(3/21)

- 중국 정부가 수단 다르푸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미국내 활동가 단체의 컴퓨터시스템이 해킹공격을 받음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 워싱턴에 본부를 둔 '다르푸르 살리기 연대'는 해킹 주체로 중국을 지목
- 다르푸르 살리기 연대의 앨린 브룩스-러슈어 대변인은 20일 연대의 대표단이 FBI 관계자와 두 차례 만나 이에 대한 조사에 응했다고 언급하고, 해킹 신호를 기술적으로 추적한 결과 이는 중국에서부터 출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
- 연대의 제리 포울러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제3자에 의해 읽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 다르푸르 살리기 연대는 6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다르푸르 유혈사태에 중국이 부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이 단체는 베이징(北京) 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에 베이징에서 '다르푸르를 위한 꿈' 단체와 연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공언

라. 미·러 관계

● 美, 對코소보 무기공급 승인...러.세르비아 반발(3/21)

- 부시 대통령은 19일 대(對) 코소보 무기 공급계획을 승인, 양국 정부 간 관계 구축을 시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음. 부시는 국무부에 보낸 메모에서 "나는 코소보에 방어용 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음.
- 미국 정부의 지난달 코소보 독립 승인에 이은 무기 공급 계획 추진은 새 코소보 정부와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상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설명
-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코소보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계획은 국제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
-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세르비아 총리도 이날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

● 美-러 MD협상서 이견(3/18)

- 미국과 러시아가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놓고 다시 이견을 노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8일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로버트 케이트 국방장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는 MD 계획을 중부유럽에 도입하기로 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반면 케이트 장관은 MD가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을 재차 밝힘.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과 리스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광범위한 현안에서 건설적인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입장을 보였음.

- 리스 장관은 양국이 MD 문제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견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음.

● 美-러 MD협상 한발 진전 돌파구 열릴까(3/19)

- 미 콘돌리자 리스 국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18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과 ‘2+2’ 협상을 벌였지만 동유럽 미사일방어(MD)계획과 관련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
-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제까지 양국이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을 때 이번처럼 화기애애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MD가 여전히 러시아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러시아측 주장과 이를 해명하려는 미국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6시간에 걸친 협상은 무위로 종결. 회담이 끝난 뒤 세르듀코프 장관은 “서로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
- 양측은 향후 MD협상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간 현안을 다룰 별도의 조식을 만들기로 합의. 리스 장관은 “이견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게이츠 장관도 “우리가 지난해 10월 제안한 내용들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
- 미측은 이날 러시아에 전날 회담에서 구두로 제안한 협상안을 공식 문서로 전달. 협상안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제안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란의 장거리미사일 보유 여부가 입증될 때까지 요격미사일을 가동하지 않으며, 레이더 기지의 관측범위가 러시아 영토를 넘지 않고 러시아 관리들의 MD시설 사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
- 특히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러시아는 미국측 협상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마. 중·일 관계

● “日, 중일 공동문서에 안보정책 투명화 포함 요구”(3/17)

-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때 발표될 양국 공동문서에 중일 양국이 안전보장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중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정부 소식통은 안보정책 투명화의 문서화에 관해 “전략적 호혜관계 차원에서 안보면에서의 신뢰확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공동문서에서 대만 독립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바. 중·러 관계

● 러 외무부, “티베트 사태로 올림픽 보이콧 안돼”(3/18)

- 티베트 유혈 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올림픽 보이콧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
- 러시아 외무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는 국내 문제이며 베이징(北京) 올림픽 보이콧은 용납되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

사. 기타

●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 승리, 8년 만에 정권 교체 (3/22)

- 3.22 제12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 국민당 후보가 승리, 국민당이 8년만의 정권교체 실현. 그러나 향후 양안관계 전망의 잣대로 여겨지던 유엔 가입 국민투표안은 투표율 미달로 부결
-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집계 결과(투표율 76.3%) 마 후보는 765만8천224표를 확보, 58.4%의 득표율로 544만5천239표(41.6%)를 얻은 집권당인 민진당의 세창팅(謝長廷) 후보를 16.8% 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승리
- 두 후보의 득표 격차는 모두 221만표로 지난 2004년 3만표 가량의 표차로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국민당의 압승
- 민진당이 발의한 타이완 명의의 유엔가입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35.8%로 과반에 못미쳐 자동 부결됐으며, 국민당이 발의한 중화민국 명의의 유엔복귀 국민투표안 역시 투표율 35.7%로 부결
-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는 대륙과의 협조노선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22일 마 후보가 세창팅(謝長廷) 민진당 후보를 누르고 총통에 당선됐고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추진한 유엔 국민투표안이 투표율 미달로 결국 부결된 것은 대만 독립에 대한 민심을 얻지 못한 결과라고 보도

동북아연구실 제공